opusdei.org

## 2월 16일, 연중 제6주 일, 성 요셉 대축일을 준비하는 3번째 주일

'예.' 할 것은 '예.' 하고, '아니요.' 할 것은 '아니요.'라고만 하여라. 그 이상의 것은 악에 서 나오는 것이다.

2020-2-15

**☆ 마태오**가 전한 거룩한 복음. 5,17-37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 하셨다...

"그러므로 이 계명들 가운데에서 가 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사람 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 나 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불릴 것이 다...

너희의 의로움이 율법 학자들과 바리 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, 결코 하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 이다...

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. 아예 맹세하지 마라. 하늘을 두고도 맹세 하지 마라. 하느님의 옥좌이기 때문 이다.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. 그 분의 발판이기 때문이다.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. 위대하신 임 금님의 도성이기 때문이다.

네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. 네 가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. 너희는 말할 때 에 '예.' 할 것은 '예.' 하고, '아니요.' 할 것은 '아니요.'라고만 하여라. 그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."

## 묵상

주님의 계명은 명료합니다. 우리는 맹세할 필요가 없습니다.

우리의 정직성은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가 '예' 하는 말의 의미는 언제나 '예' 일 뿐이고, '아니요' 하는 말의 의미는 언제나 '아니요' 일 뿐임을 아는 것입니다.

우리의 덕이 지속적일 때 사람들은 우리가 의존할 만한 사람들이라는 것 을 압니다. 이는 우리들은 실수를 하 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 다. 우리들은 실수를 합니다.

그러나 정직한 사람에게는 그들의 오 류를 인정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 습니다. 거짓말을 하는 것은 우리를 곤란함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.

정직해지는 것은 아마 다른 곤란함으 로 이끌 것입니다. 진실을 숨기는 것 은 몇 가지 이득을 줄 것입니다. 정직 해지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복잡하게 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정직함은 언 제나 매력적입니다. 그 진리, 그 계명 들에 대한 오늘 복음 말씀을 읽었을 때, 우리는 '편안하게'될 수 없습니다. 진리는 그 누구도 믿지 않더라도 진 실이고 거짓말은 모두가 믿을지 라도 **거짓입니다.** 흔히 말해, 모두가 하더 라도 틀림은 틀림이고, 아무도 하지 않더라도 옳음은 옳음입니다.

골프 시합에서 이긴 7살 소년은 다음 날 대회를 주최한 골프 클럽에 우승 트로피를 되돌려 보내기로 결정했습 니다. 우승 트로피와 함께 동봉된 편 지의 내용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.

"제 이름은 야고에요. 지난 토요일에 저는 아저씨의 클럽에서 주최한 어린 이 골프 대회에서 우승을 했어요. 점수판은 제 총점이 50샷이라고 가리켰어요. 하지만 다시 한 번 아빠와 점수를 보았을 때 저는 제가 실수를 했다는 것을 알아챘어요. 실제 총점은 51샷이었어요. 아빠는 우승 자격이 아닌 50샷으로 점수판에 서명을 잘못했던 것이에요. 그래서 저는 이 트로피가 저랑 대결을 한, 이 트로피를 받을 자격이 있는 친구가 받았으면 해요. 오늘 저는 점수판에 서명을 하기전에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어요. 안녕히 계세요. 야고 보낸."

정직함은 매력적입니다. 정직함은 가 끔 어려울 것입니다.

그러나 우리는 정직함이 옳은 것이라 는 것을 압니다.

저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여, 저의 '예' 가 언제나 '예'가 될 수 있게 해주시 어, 정직한 그리스도인으로써 알려질 수 있게 해주소서. I pray 번역 원문 : George Boronat 신부

번역: 정대영 요셉

pdf | document generated automatically from https://opusdei.org/ko-kr/article/ 2weol-16il-yeonjung-je6juil-seong-yosebdaecugileul-junbihaneun-3beonjjae-juil/ (2025-12-13)